

상업주의 우려 속 반면교사 역할도

틱낫한 스님 방한이 남긴 것

틱낫한 스님이 3일 이화여대 강연을 끝으로 두 번째 공식 방한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 출국했다. 스님의 이번 방한을 앞두고 본지(404·413호 참조)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출판 상업주의'를 우려했었다. 또한 외국 스님들의 잦은 방한에 비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로 한국에도 틱낫한 스님 이상의 스님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스님들의 회향 방식에 대해서는 반성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님 방한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짚는 것은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한 반성적 점검도 될 것이다.



◇3월 20일 서울 코엑스컨벤션홀에서 열린 '화' 강연.

◎신간 홍보 사절단?

본지(404호)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 틱낫한 스님의 이번 방한은 출판 상업주의의 혐의를 지울 수 없었다. 그 근거는 스님 방한을 주최한 명진출판사의 신간서적 홍보. 명진측은 방한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진에서 나온 스님의 책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특히 스님 방한에 맞춰 출간된 '힐'을 여러 책들 중 제일 위로 올려 서용스님이나 보성스님, 도법스님 등에게 선물했다.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스님의 선물 대부분이 명진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고, 그 책들 중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는 것이 신간서적이라면, 이것은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을까?

◎무리한 진행 잘못된 진행

스님은 방한 내내 행사 예정시간보다 늦게 나타났다. 10~20분은 예사였고,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기도 했다. 순천 송광사에서 일반인들이 대웅전 앞에서 30분 이상 추위에 떨었고, 남원 실상사에서는 1시간 이상 스님을 기다렸다. 이것은 주최측이 스님의 나이(77)를 고려하지 않고 무

쉽고 현실적인 법문... 재탕·지루한 점 '흠' 무리한 진행 - 행사마다 10분~1시간 지연 새만금서도 '걸기' ... '이벤트 전략' 비판도

리하게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스님의 결함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스님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또 스님은 방한 내내 귀속에 이어폰을 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른바 시설 경호원들이다. 스님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호원들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둘러싸여 대중들과 격리된 스님의 모습이 '해의 유령 연예인'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나친 편지걸기일까?

◎걸기명상 또는 이벤트 틱낫한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역시 '걸기명상(Walking Meditation)'. 하지만 방한 중 이 걸기명상이 하나의 이벤트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 첫번째가 3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민 평화 염원대회'. 주최측이 주장하던 10만명 운집(2천명)은 차차하더라도, 스님은 대회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 한 뒤, 군중 가운데로 걸기명상을 간단히 '시범' 보이고 버스에 올랐다. 두 번째는 3월 38일 부안 해장갯벌에서 열린 새만금 삼보일배 현장. 스님은 여기서 '새만금'이나 '갯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삼보일배를 시작하려는데, 생뚱맞게 '걸기명상'과 '플럼블리지'에 대한 소개만 했다.

◎쉬운, 그러나 지루한 법문

틱낫한 스님이 한국불자들을 사로잡은

비구는 여성과 단둘이 승차하지 말라 담배·TV·전자게임기는 멀리 하도록

틱낫한 스님, 바라제목차 개정본 발표

틱낫한 스님이 3월 31일 중앙승가대에서 바라제목차(비구 250계의 항목) 개정본을 발표한 이후 한국불교계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반된 의견의 골자는 '계율 개정에 대해 승가의 공의를 모았어야 했다'는 것과 '현대적 정수로 받아들여야 의미 있다'는 것이다. 계율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율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제불교 단체에서도 논의 중인 만큼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승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도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측은 "계율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지키지 못할 계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꼭 행해야 할 규범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틱낫한 스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합당한가 안한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의 바라제목차는

특히 현대사회와 밀접한 자동차, 텔레비전, 전자오락, 주시 등과 관련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자동차... 비구는 자기 차를 가지면 안되고, 여성과 단둘이 자동차를 타면 안된다. 물질... 비구는 담배나 향신성 물질로 간주되는 것이나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가라오케 전자게임기 등 장비를 가지면 안된다. 행위... 비구는 상스러운 책이나 점치는 도구를 가지거나 투자를 하거나 채권을 사면 안된다. 개정본 발표에 대해 스님과 플럼블리지 차원의 문제로 한정하면 되지 '개정'의 차원까지 의미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그러나 '비구는 자기 차를 가지면 안된다'면서 '운전하면서 대화를 해서 안된다'는 등의 모순은 원칙과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예를 제시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주요한 코드는 법문이 '쉽다' '현실적이다' 이 두 가지. 스님은 저서와 강연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거론하며 쉬운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방한 기간 중 스님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이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자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말이 나오는가'가 취재 포인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틱낫한 스님 방한, 한국불교의 반면교사 스님의 방한과 관련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국불교가 자초한 일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즉 '정신적 사대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불자들이 틱낫한 스님과 스님 방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원인을 분석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틱낫한 스님의 방한은 이제 시작이다. 향후 제2의 틱낫한, 제3의 틱낫한 스님이 한국에 온다고 해도 이번 방한과 같은 모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임태리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오늘을 사는 어르신들

'나'를 찾아서 모이신 분들 황혼기가 삶의 절정 되길

시험이란 아이나 어른이나 긴장하게 만드는 것인가 보다. 센터의 사회교육 담당하는 나는 종종 어르신들의 시험 감독관이 된다. 그럴 때마다 나의 학창시절 무서운 시험 감독관이었는지 모를 우리 어르신들은 다스림 학생이 되신다. 중국어회화반 기초시험이 있는 날. 시험지를 들고 교육실에 들어서는 나에게 30여명의 어르신 응시생들의 시선이 쏠린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바로 두툼한 시험지 문지름 율려간다. 정적과 함께 흐르는 긴장감. 몇몇 어르신들이 그 긴장을 풀어보시려는 듯 허뿔, 허뿔 하고 헛기침을 하신다. 곧이어 시험지를 받은 어르신들은 각자 그 옛날 학창시절로 돌아가신다.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풀어나갈 문제의 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발걸음 상 기된 어르신의 얼굴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는 열의로 가득 차 있다. 안타까움을 만면에 가득 띤 어르신의 눈길은 자꾸만 차마 가만 속에 날지도 못해 옆자리 의자에 가만히 놓아둔 교과서로 향한다. 슬금슬금 나이 어린 감독관의 시선을 확인하는 어르신의 모습에 나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면 안타까움의 절정에 달한 어르신의 마음은 옆에 놓인 교과서를 열면 한번 들추어보고 만다. 그 짧은 순간 오갔을 무수한 갈등과 긴장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지! 이럴 때 옆자리에서는 자신감과 소신에 찬 한 어르신이 시험을 보고 계신다. 막힘없이 적혀 답을 써 내려가시는 이 어르신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옆자리 어르신. 아마도 미처 많은 준비를 해오지 못하셨나보다. 영 어려우신 듯 한동안 문제풀기를 멈추시고는 한손으로 입 언저리만 쓱쓱 문지르시더니 이제는 인생의 눈이 하얗게 내

린 머리칼을 연신 쓸어 올리신다.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에 나는 뒤돌아서서 미소를 참을 뿐 차마 주의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에게서는 시험의 부정행위가 아닌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배움에 대한 순수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읽는다면 그 누가 딱부러진 주의를 줄 수가 있을까. 너무나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세대인가. 빼어난 전쟁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오로지 생을 위해 자신의 얼마나 많은 꿈을 접어야만 했는지. 인생의 많은 많은 인연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잊으며 살아왔어야 했는지. 이러한 이해 앞에 시험시간 에피소드는 그저 웃어넘기고 말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백양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가장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여기 모이신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그런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나'를 찾아,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이렇게 모인 어르신들. 그렇게 모여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생즉학(生即學)'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이 인생의 황혼기를 삶의 절정의 날로 살아갈 것이라 기대한다.

간(肝)

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아들 때까지 48시간을 달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린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참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아리에 넣고 황겨 9가마니를 달은 뒤 황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붙어둔 흰 향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막 8-9이 걸립니다. 환담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교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3시간만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 영가(조상신)를 천도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중영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잠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령)
- ◆ 영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제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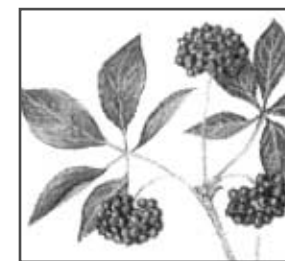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 자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행받는 특별 상담

- 무병 · 신병으로 고행하는분
-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림과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행받는분
-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시 : 인원 수시 접수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응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이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응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 · 노년층
-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 · 노년층
-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김현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알링크 / 홈페이지 : http://www.kn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문의처 02)3453-3421